

육가공업체, 육가공제품 구매량 급격히

우리나라 육가공 제품 소비와 돈육 수출이 급신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육가공 산업은 1980년 제일제당과 롯데 등 대기업이 참여하면서부터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해 그 뒤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보여 다른 식품산업에 비해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돼지고기의 양은 '81년 10만8천6백두에서 '86년에 28만9천8백두로 올리는 55만5천두, '90년에는 91만8천 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0년만에 약 8.5배나 신장되었다.

〈표1〉 육가공품 및 커트미트 수출외 돈육사용 비율(추정)

(단위 : 천두)

항 목	'86	'87	'88	'89	'90	비 고
전국 돼지 사육두수	3,347	4,260	4,000	4,800	5,000	
출하두수	6,025	7,070	8,280	8,640	9,000	
육가공소 요원료육	290	410	555	700	918	두당 90kg
커트미트 수출	24	72	145	217	290	정육율 46%
계 (비율)	314 (5.2%)	482 (8.3%)	700 (8.5%)	917 (10.6%)	1,108 (12.3%)	로 환산

또한 돈육 수출도 '86년 1만8천1백40두에서 '87년 7만4천7백60두, '88년엔 14만4천9백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만도 우리나라는 6만8천8백20두(선적기준)의 돈육을 일본에 수출했는데, 업체별 수출 내역은 〈표2〉와 같다.

이중에서도 제일제당과 같은 대규모 가공시설을 갖춘 육가공 업체들이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표2〉 업체별 대일 돈육 수출 실적(88년 8월)

(단위 : 톤)

구 분	량		전 월 등락(%)	
	당월(A)	누 계	수출량(B)	A/B
제 일 제 당	201	991	175	14.9
제 일 농 장	239	1,039	212	12.7
남 부 햄	11	143	22	-50
구 일 산 업	34	194	22	54.6
신 창 상 역	-	132	31	-
동 남 육 가 공	88	648	106	-17.0
한 국 냉 장	59	256	123	-52.0
청 양 산 업	38	125	-	-
청 양 식 품	87.5	381.5	108	-19.0
롯데 햄	61	311	40	52.5
주 햄	10.5	80.5	11	-4.6
축 협 중 앙 회	-	22	-	-
극 동 식 품	-	-	-	-
사 조 산 업	11	48	-	-
은 정 산 업	49	293	59	-17.0
계	889	4,664	909	-2.2

〈표3〉 연도별 돈육수출(추정)

(단위 : 두)

연도 분류	'86	'87	'88	'89	'90
전체돈육 수출량	18,140	74,760	144,900	217,390	289,850
제일제당 수출량	8,430 (42.5%)	17,270 (23.1%)	38,650 (28.7%)	72,460 (33.3%)	101,450 (35.0%)

전체 수출물량 중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체 돼지고기 소비량 중 육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도 크게 늘어나 '86년에 48%에서 '87년에 5.7%, '90년에는 10.2%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돈육 수출량까지 합치면 '87년 6.3%에서 '90년에는 12.3%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육가공 업체의 돈육수출과 육가공 제품

· 돈육수출 증가로 돈육

확대

안 장 현
(장현농장 대표)

생산을 위한 돼지구입이 활발한데 제일제당의 경우 올해 약 20만두의 돼지를 수매할 예정이며 '89년에 30만두(3.2%), '90년엔 40만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매지역은 육가공 공장과 같은 대규모 소비처가 없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호남지역에 대한 구매량이 계속 늘어나 전국이 고르게 양돈산업이 발전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으나, 육가공 공장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산지에 지역별 전용 가공공장을 개설할 계획도 갖고 있어 운반비는 물론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오는 사이에 발생하는 감량 손실을 줄여 이 이익을 양돈농가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표4〉 지역별 돼지 사육두수 및 제일제당 구매두수

지역별 분류	경원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계
사육두수 (*88)	1,780천두 (38.7%)	1,120천두 (24.3%)	880천두 (19.1%)	860천두 (18.7%)	4,600천두
제일제당 구매두수 (88.1-7)	8,590두 (9.9%)	18,731두 (21.7%)	23,974두 (27.7%)	35,200두 (40.7%)	86,495두

사료를 양돈농가에 공급하고 양돈농가의 돼지를 우선 구매하는 일종의 장기 공급계약과 같은 형태의 구매체제는 계약상 공정거래만 이루어지면 생산자재의 공급과 생산과 판매유통이 통합되는 계열화 체제가 정착되어 양돈산업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일반 양돈농가에까지 확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제 양돈산업의 새로운 제도 정착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양돈농가로서도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같은 계열화 체제가 가능한 것은 제일제당의 경우 식품컴비나트(Comblnat) 즉, 사료→양돈농가→육가공→판매망 확보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육가공 제품이나 돈육수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육가공 제품의 경우 돈육을 주원료로 하는 축육제품은 아직 안정적이고 값싼 원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량생산→대량소비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양돈농가에서 육가공이나 수출용으로 적합한 105kg 규격돈 생산을 꺼리는 것이 현실 문제로 가로 놓여 있다.

육가공업과 양돈업이 협업관계를 통해 이들 문제를 해결한다면 현재의 성공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실제 지난해 연말부터 돼지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나 농림수산부와 일부 양돈관계자들이 양돈불황이 올 것으로 우려했으나 최근 돼지가격은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육가공업체의 적극적인 원료돈 구매와 수출 추진으로 늘어난 사육두수를 흡수하고 있는데 힘입고 있다.

축산물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양돈 수출이 계속 확대되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양돈수출에 대한 확고한 장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